

5월 3일(월) / 왕하 16-18

- ▶ **내용요약** : 열왕기하 16장에서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다. 17장에서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호세아는 앗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앗수르의 공격을 받았고, 호세아는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결국 사마리아는 호세아 재구년에 앗수르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18장에서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십구 년간 다스렸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는 여러 산당들과 우상들을 훼파했을 뿐 아니라, 우상시 되었던 모세의 놋뿔도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 ▶ **질문** : 모세가 만든 놋뿔을 부수었던 유다 왕의 이름은? (18장)
- ▶ **생각하기** : 북 왕국 이스라엘과 남 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자.

5월 6일(목) / 스 1-3

- ▶ **내용요약** : 에스라 1장에서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땅으로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지시했다. 이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유다로 향하였다. 고레스 왕 또한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했던 성전 그릇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2장에는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당시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삼백육십 명이었으며,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터에 이르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3장에서는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며, 기쁨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 ▶ **질문** :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한 바사의 왕은? (1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신뢰하며 의지하자.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5월 9일(일) / 욥 1-3

- ▶ **내용요약** : 욥기 1장에서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욥을 사이에 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욥을 흠족히 여기심을 본 사탄은 그에 대한 중상모략을 시도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맡기셨고, 사탄은 단번에 욥의 모든 자녀와 재산을 빼앗았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후 2장에서 사탄은 다시금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육신을 쳐서 발바닥

5월 4일(화) / 왕하 19-21

- ▶ **내용요약** : 열왕기하 19장에는 앗수르 왕의 침공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앗수르 왕은 패하여 고국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20장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에서 온 사절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자랑하듯 보여줌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차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도 들어야 했다. 한편 2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와 달리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 그의 아들 아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결국에는 신복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 ▶ **질문** :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유다의 왕은? (21장)
- ▶ **생각하기** : 앗수르 왕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단번에 물리치셨으며 하나님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사탄은 지혜롭고 강한 존재이다. 어쩌면 우리를 비웃으며 조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심하자. 하나님의 앞에서 사탄은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5월 7일(금) / 느 8-10

- ▶ **내용요약** :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학사 에스라는 나무 강단에 서서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일임을 강조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했다. 이후 초막절이 끝나고 9장에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할 것을 서약하는 인을 쳤다. 10장에는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으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 ▶ **질문** :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8장)
- ▶ **생각하기** :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날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다. 심지어 그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을 욕하도록 욥을 시험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후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멀리서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슬퍼하였다. 이에 3장에서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종의 탄식과도 같았다. 그만큼 욥의 몸과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5월 5일(수) / 왕하 22-25

- ▶ **내용요약** : 열왕기하 22장에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 그는 여덟 살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특히 성전을 복구하는 도중에 발견된 율법책을 읽은 후, 더욱 개혁을 추진했다. 23장에서 요시야는 우상들과 이방 예배를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으며,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4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을 사로잡아갔다. 결국 25장에서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 ▶ **질문** :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추진했던 유다의 왕은? (22-23장)
- ▶ **생각하기** :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자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회개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5월 8일(토) / 에 4-7

- ▶ **내용요약** : 에스더 4장에서 모르드개는 유다인들을 도록하려는 하만의 계락을 에스더에게 전했다. 이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5장에서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청하였다. 이에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자신만 초청을 받았음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였다. 그리고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한 나무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였다. 한편 6장에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신하로 하여금 역대 일기를 읽게 하였다. 그러다 모르드개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일을 알게 되어, 그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존귀하게 하였다. 이후 7장에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한 에스더는 하만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왕에게 고발하였고, 이에 왕은 진노하여 하만을 붙잡았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직접 준비한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 ▶ **질문** :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했던 왕후의 이름은? (4장)
- ▶ **생각하기** :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어떤 책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 ▶ **질문** : 동방의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은 사람은? (1장)
- ▶ **생각하기** :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욥 1:21/새번역)" 충분히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관계없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절대자이심을 고백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보자)